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 강성조선의 새봄과 더불어 활짝 꽃피리

못 잊을 75년전 라향의 그 봄날에

맑고 푸른 내 조국의 하늘가에 불빛이 흐른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승리의 대축전이 더 활짝 꽃피려낸 민병의 해인 뜻깊은 올해의 승리를 예고하여주며 온 나라 장단에 따스한 봄기운이 들고있다.

봄,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의 훈향을 더더욱 가슴누릴게 댕스구 하하니 뜻깊은 희곡이 못 잊을 추억을 실고 웃음이 다가온다.

항일대전의 나날 포연에 그슬린 군복 차림으로 불빛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앞에 서서여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며 배두산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전심전신장군으로 명성명치신 김정숙동지께서 그 모습.

우리포린 우러를수록 잊지 못할 라향의 그 봄날과 더불어 우리 수령님과 항일의 너설영을 김정숙동지에서 대한 헌정은 그리움으로 우리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뜨겁게 젖어드는것인가.

75년전 3월 제 밀리 라향에서 봄을 맞으신 배두산위인들의 해빛같은 미소는 오늘도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현안군민의 앞길을 뜨겁게 촉부해주며 나라 조국장상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100년사는 라향의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혈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책사입니다.』

이노댓 75돌기의 년풍이 아로새겨졌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속에 오늘도 배두산장군들께서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신 사연은 더욱 못 잊을 추억으로 우리의 심장을 울려 주고있다.

주제 30(1941)년 3월 1일, 어때서 나 봄이이 완연히 노르지고있던 날이었다. 조선의 혁명가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실현할 시기가 돌아오고있던 때였다.

이 역사적시기에 라향의 수령속에서 봄을 맞이하게 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가슴은 얼마나 풀없는 격정으로 열려있었는가.

이날 대원들은 멀지 않아 소부대를 이끄시고 원정의 길을 떠나게 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과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대원들의 기쁨이 하늘에 닿았는가 눈부신 태양도 따사로운 봄빛을 한껏 뿌리며 누리며 더욱 활기차게 빛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봄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앞에 서서여 전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은 대원들은 그이께 김정숙동지와 따로 함께 사진을 한장 찍으신 후 종강도 말씀드리었다.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의 사진을 한쌍씩 매일 아끼시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일의 너설영을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더불어 력사의 그 봄날을 자주 뜨겁게 회억하신것기라.

누구보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고향의 봄을 지나려나 그리신 배두산장군들이시었다.

김일숙 우동불가에서 대동강을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만경대의 봄을 절절히 그리시며 조국에 대한 복받쳐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 『사향가』에 담으시던 우리 수령님.

가말한 전장에서, 조국전군의 길에서 백살자를 만발한 오산덕의 봄날을 눈마음에 새겨안으시고 항일열전의 험난한 언덕들을 웃으며 역세제 넘어오신 배두산장군 김정숙동지.

단독속 비쳐서라도 거머안 찾아야 할 귀중한 조국을 위해 배두산위인들께서 혁명의 용대를 끌어안으시고 열고도 험난한 눈보라 길을 헤쳐오신 뛰어난 자곡자곡은 오늘도 항일의 전구마디에 력의 새겨져있다.

간고한 항일대전을 벌리시며 라향의 봄을 혁명의 봄으로 가슴인 배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선군명왕의 거룩한 자곡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로 내다보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현실로 펼쳐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져 오신 선군혁명전선리검을 우리는 잊을수 없었다.

우리 용화국을 앞잡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쿠데에 이르렀던 고난의 언덕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수호전에 나서시었던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서 풀없이 올랐다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피리라』의 구절구절이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쁨 때에도 괴로움 때에도 우리 조국에 따뜻한 사랑을 안아줄 불타는 열의 조국도 시련에 넘어오는 대지를 녹이시며 선군정정을 꾸민 것이 이거기던 우리 장군님.』

우리에게서 행복의 봄을 빼앗으려고 된 푸들이 억압하게 뻗었던 시기에 찬란한 군민의 심장마디에 선군만이 살길이라는 의념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시고 천리방신을 주춤잡으시며 총항무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곡자곡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단독속 비쳐서라도 거머안 찾아야 할 귀중한 조국을 위해 배두산위인들께서 혁명의 용대를 끌어안으시고 열고도 험난한 눈보라 길을 헤쳐오신 뛰어난 자곡자곡은 오늘도 항일의 전구마디에 력의 새겨져있다.

항일전선의 나날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

총알도 막아준 솜외투

『세계와 더불어』에는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려웠던 일고대시던 솜외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솜외투로 말하면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수 지어 드신것이였다.

여러날을 두고 밤잠도 잇으며 한통두름 정성을 기울여 만든 외투가 완성 되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명주솜이 푸는 위대한 수령님께 꼭 맞았다.

모포에 깃든 사연

김정숙동지께서는 모포를 그에게 주시면서 자, 기념으로 가지고가거라. 색깔은 아니지만 너를 응원하듯 사방해운 이 언더 온기가 스며있다는걸 잊지 말아달라고 하시며 내내 품의 배낭에 그 모포를 차곡 차곡 포장해 넣어 주시었다.

그때로부터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연깊은 그 모포를 다시 보게 되시었다. 배낭이 상성한 한어기되

김정숙 동지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활짝 웃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입을 날 잊지 못하시어 솜외투에서 사랑을 새겨나 잠을 잘 때면 그 명주솜의유풀을 얼굴 하얗게 문어 혼 혼하듯 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는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자질은 격정강에서 날아오는 용감함이 아니라 한자로운 사나운 추위도 막아주었다.』

지극한 정성

김정숙동지께서는 지은이든 그날의 미소를 두고 얼마나 뜨거우런 격정으로 눈금을 적시었는가.

『용물의 열기를 갖는 옷에 빼앗기고 오호호로 떨던 것도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내내 애써지 않으려고 애쓰시며 지은이던 김정숙동지의 정성의 미소.』

정녕 배두의 너장군의 그 미소는 오늘도 현안군민의 심장마디에 울려오듯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심장이 새겨주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돌아보지 못했고 해야 할 일을 하신다면 그것을 응당할 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 손수 지어 달래주시었다.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사향가》에 실리여오는 잊지 못할 추억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깊은 밤 정원길에서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사회주의위업의 필승불패성에 대한 절세위인의 력사적선언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그 봄을 잊을지 가늠하오실까! 사진뒤면에 라향에서 봄을 맞으면서 1941. 3. 1. B.A.영구에서 라는 글씨를 써놓았읍니다.』

이적은 때쳐야 할 시선이 없던데 태양 주위의 휘황한 앞날을 그리시며 배두산위인들께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한쌍의 기념사진.

공동구호에서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석탄전선에 라오른 기적창조의 불길

서부지구 탄광들에서 올해 최고생산실적 기록, 종전보다 매일 수천t의 석탄 증산

70일전투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소리를 각지 탄광 지하막 장들이 울고노는소리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서부지구의 대규모탄광들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져 나오고 있다.

2월 28일 현재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순천지구, 익천지구를 비롯한 서부지구 탄광들에서 23일부터 생산이 급격히 상승하여 올해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하여 탄광들의 석탄생산에는 골짜기 초를 닮아 두터운 석탄산이 하늘높이 치솟아오르고 화력

발전설비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달리는 기관차들의 거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석탄의 끊임없는 생산 적양을 필요로 하는 제국 지리 조건과 발전전선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익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일꾼들과 탄부들이 70일전투를 본매있게 벌이고 있다.

한주일동안에 근 2천t의 광석 증산

통양광산에서

광석증산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70일전투의 첫작부터 생산에서 양상을 일으켜 영웅적인 기쁨을 맛보며 열정과 투쟁의 불길을 불태우고 있다.

당시 부흥파와 70일전투에 떨쳐나선 통양광산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첫날부터 마그네사이트 광석과 경소마그네사이트 광석과 경소마그네사이트 광석을 생산을 계획보다 1.2배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첫 한주일 동안에 마그네사이트 광석생산도 계획보다 근 2천t을 증산하였다.



석탄증산의 기쁨을 안고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안은 평대탄광의 탄부들

남양탄광에서는 100t이상의 석탄이 증산되고 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순천과 익천지구의 탄광들에서 라오른 기적창조의 불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서부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부들과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부들이 70일전투를 본매있게 벌이고 있다. 그리고하여 탄광들의 석탄생산에는 골짜기 초를 닮아 두터운 석탄산이 하늘높이 치솟아오르고 화력

발전설비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달리는 기관차들의 거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도록 석탄을 대량으로 대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와 익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일꾼들과 탄부들이 70일전투를 본매있게 벌이고 있다.

사회주의대지에 수십만t의 거름을 실어냈다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70일전투에서 부른 당의 전투적소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동해지구 농촌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따라오면서, 파리에 우기운들의 불길 높이 승리의 5월을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첫 한주일 동안에 동해지구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십만t의 질 좋은 거름을 모전에 실어냄으로써 당의 불같은 도전에 힘입어 최적으로 화합하였다.

중량레루교정기생산 성과적으로 결속

성기기련합기업소에서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은 나과 70일전투로 부강부국 걸어가고있는 벼랑 끝에 나라의 위대한 대사업비생산지인 중량레루교정기생산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중성기기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첫날부터 마그네사이트 광석과 경소마그네사이트 광석을 생산을 계획보다 1.2배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되어 첫 한주일 동안에 마그네사이트 광석생산도 계획보다 근 2천t을 증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혁명전진기 국사개조로 제1국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70일전투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결집한 농촌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가리하는 주역적역으로 나선 명사의 자태로 떨쳐나섰다.

합정북도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이 70일전투목표를 높은 생산적양으로 전진해나오는 로동적위훈으로 써나가는 불같은 열의에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도인의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은 70일전투를 통하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혁명전진기 국사개조로 제1국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70일전투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결집한 농촌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가리하는 주역적역으로 나선 명사의 자태로 떨쳐나섰다.

합정북도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이 70일전투목표를 높은 생산적양으로 전진해나오는 로동적위훈으로 써나가는 불같은 열의에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도인의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은 70일전투를 통하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

모두다 총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제1회 광복절을 맞이한 70일전투에서 영웅적인 승리가 되기를 위한 군중대회와 광복축전, 자강도에서, 군들에서 2월 28일과 29일에 진행되었다.

29일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봉을 받들 주체 혁명의 새 시대 전위투사들을 함께 붙들고 함께 주체로 대표하는 새로운 번영기를 모란꽃이 피어나는 혁명적위훈을 거두어들이고있는 각계 농민근로자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모두다 총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혁명전진기 국사개조로 제1국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70일전투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결집한 농촌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가리하는 주역적역으로 나선 명사의 자태로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혁명전진기 국사개조로 제1국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70일전투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결집한 농촌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가리하는 주역적역으로 나선 명사의 자태로 떨쳐나섰다.

합정북도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이 70일전투목표를 높은 생산적양으로 전진해나오는 로동적위훈으로 써나가는 불같은 열의에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도인의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은 70일전투를 통하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를 혁명전진기 국사개조로 제1국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70일전투를 통하여 당과 혁명에 대한 자기들의 충성을 결집한 농촌과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가리하는 주역적역으로 나선 명사의 자태로 떨쳐나섰다.

합정북도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이 70일전투목표를 높은 생산적양으로 전진해나오는 로동적위훈으로 써나가는 불같은 열의에 날마다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도인의 일꾼들과 농민근로자들은 70일전투를 통하여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



중량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기공부들의 로동자들

